구매한도 5만원…과몰입땐 중독 상담

건전구매지킴이…구매한도 설정 의무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
발매총량 항시 관리·구매이력 분석도

8월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스템의 구매 화면, 온라인 발매 이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자기한도 설정,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몰입도 측정 서비스(위부터 시계방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하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8월 6일부터 경륜과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다. 공단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온라인 발매가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출총량에 따른 발매규모 관리, 이용자 과몰입 예방, 사업 건전화 방안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륜과 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공단,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등 3개 경주사업자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은 공단이 지방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의 전자카드(영업장 내 사용)를 고도화한 발매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구축하게 된다.

온라인 발매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매출총량을 기초로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한다. 주기적으로 온라인 발매 실적을 점검해 총량의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규제 장치를 마련해 관리한다.

●이용자 과몰입 예방, '건전구매지킴이'

온라인 발매를 앞두고 제기됐던 여러 우려 중 가장 많은 것은 경륜·경정 발매에 대한 접근성이 간편해지면서 생기는 이용자 과몰입이다. 그래서 공단도 온라인 발매로 인한 과몰입 예방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현재 신규로 구축하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성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온라인 구매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개인별 구매이력을 분석해 이를 이용자에게 피드백하는 건전구매지킴이 기능과 상담서비스 자동연결 기능 등도 포함했다.

건전구매지킴이는 게임몰입도 측정, 구매한도와 몰입완화기간 설정, 구매이력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별 게임몰입도를 측정해 과몰입으로 분류되면 중독예방 상담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선다. 개인별 수입과 지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베팅금액을 제시해 준다. 또한 몰입완화기간을 설정해 승자투표권 구매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과몰입을 예방한다.

●구매한도 5만원, 오프라인의 절반 축소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구매한도액은 1경주 당 5만 원이다. 오프라인 구매 한도 1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온라인 구매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선수와 심판, 사업장 근무자 등 경륜·경정사업 관련자는 회원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경주가 끝나면 녹화영상을 공개해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불법도박 적발을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도 확대 운영한다.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2개의 장외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외지점 폐쇄로 생기는 영업장 유휴공간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괴물' 임채빈이 바꾼 수성팀

팀 합류 후 김형모·류재민·안창진 등 고공행진

임채빈

"수성팀을 강팀 반열에 올려놓겠습니다."

특선급 돌풍의 중심 '괴물' 임채빈(25기, 30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수성팀 대다수 선수들은 임채빈 합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급성장 중이다.

김형모(14기, 38세)의 코로나 이전 2019년 성적은 51회 출전에서 1착 5회, 2착 6회, 3착 9회(승률 10%, 연대율 22%, 삼연대율 39%)로 우수급 중위권의 평범한 선수였다. 그러던 그가 임채빈을 만나면서 확 달라졌다. 올 시즌 12회 출전해서 1착 5회, 2착 3회, 3착 3회(승률 42%, 연대율 67%, 삼연대율 92%)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단 12경기 만에 2019년 우승횟수와 동률을 기록할 만큼 일취월장했다.

류재민(15기, 37세)도 올 시즌 특선급에 재진입한 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월 30일에는 세종팀의 임치형, 박성현의 협공에 고전하며 대열 제일 후위로 밀리기도 했으나 막판 3코너를 돌면서 폭발적인 젖히기를 선보이며 우승해 쌍승 109.3배를 안겨줬다. 지난 2일에는 정종진을 상대로 선행 3착, 3일에는 인치환을 상대로 선행 2착을 하며 일요 결승까지 진출했다.

임채빈의 훈련원 동기 안창진(25기, 31세)은 지난해 선발급 8연승으로 우수급 무대를 밟고 특유의 선행, 젖히기 승부를 앞세워 12회 출전해 1착 8회, 2착 4회(승률 67%, 연대율 100%)로 고공행진 중이다.

3월 28일 부산 결승, 6월 20일 광명 결승 우승에 이어 18일 광명 결승에서는 4명씩이나 포진해 있던 동서울팀의 협공에 고전하기도 했으나 내선 진로 막힘의 어려움을 악착같이 뚫고 나오면서 2착했다. 경륜입문 후 현재까지 20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7일 선행 2착을 하며 우수급 첫 입상에 성공했던 배준호(24기, 30세)는 지난 11일 드디어 선행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지난주에도 금요일 3착, 일요일 2착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작년 1월 26일 우승 이후 주춤했던 명경민(24기, 29세)도 5월 28일 선행 2착, 30일 추입 우승으로 다시 시동을 걸더니 4일에는 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수급 입상이 전무했던 노형균(25기, 27세)도 2일 선행 2착, 4일 젖히기 우승, 17일 선행 2착을 하며 7월 들어 피치를 올리고 있다. 정동호(20기, 33세) 역시 3월 20일 쌍승 624.7배, 삼복승 614.5배를 기록하며 2착, 6월 5일 쌍승 87.6배를 기록하며 2착하는 등 고배당 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수성팀은 임채빈의 솔선수범과 각별한 애정 속에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팀원들은 임채빈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따라가는 훈련만으로도 실력이 쑥쑥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코로나 후유증 이제 그만 경정 강자들 컨디션 회복

김종민·류석현·이태희 등 반전

김종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레이스가 자주 중단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기량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강자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최근 이들 중 여러 선수들이 빠르게 예전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경정의 대표적인 강자 김종민(2기 A1 45세)은 지난해 10회 출전 중 1착 2회 2착 2회 3착 6회로 승률 20%를 기록하며 이름값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9회 출전 중 1착 5회 2착 4회로 강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12기 대표 선수 류석현(A1 36세)은 지난해 11회 출전에서 1착 4회 2착 2회 3착 1회와 착외 성적을 4회 기록하며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2021 시즌은 현재까지 9회 출전해 1착 6회 2착 2회 3착 1회로 경주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베테랑 이태희(1기 A2 51세) 역시 지난해에는 6회 출전 중 1착 1회 2착 2회 3착 1회와 착외 성적 2회를 기록하며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15회 출전 중 1착 5회 2착 1회 3착 2회로 반등한 모습이다.

중위권으로 예상됐지만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도 있다. 김완석(10기 A1 40세)은 총 12회 출전 중 1착 6회로 평균스타트 0.14초를 발판으로 한 50% 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주현(8기 A1 38세)은 올 시즌 12회 출전 중 1착 5회로 승률 41.7%를 기록 중이다. 스타트(평균스타트 0.22초)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1턴 전개와 포기하지 않는 승부근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경륜 선수들, 심판판정 프로그램 참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6일 광명 스피돔에서 '2021년 경륜선수와 함께하는 경륜 심판판정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륜선수들이 심판판정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판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 황승호(S1 19기 김포 36세), 이수원(S3 12기 수성 42세), 남용찬(A2 17기 청평 38세), 허동혁(A3 11기 세종 42세)이 참석해 심판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운영되는 장비와 착순판정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